정답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①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④	22 ①	23 ③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①	35 ④	36 ⑤	37 ③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②	43 ③	44 ①	45 ④					

해설

[01~05] (화법)

01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 이해 ④

㉔은 성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상대에게 확인하려는 의도를 담은 의문문이다. 이 발화는 자신의 물음에 대해 성아가 답을 해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발화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문화적 배경 차이 때문에 화제 선택에 제약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지.’라는 말을 통해 재은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엄지를 치켜들며)’를 통해 재은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에서 성아가 재은이를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리고? 계속해 봐.’와 같은 재은의 반응은 성아의 말을 계속 들으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와 같은 태도가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함을 알 수 있다.

02 발화의 내용 미루어 짐작하기 ②

재은은 청중들이 성아의 훌륭한 인품을 알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제시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근거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었던 일화들을 들려주면서 자신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임을 부각시키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재은의 조언이 아니다.
 ③ 학급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음을 강조하는 것은 재은의 조언이 아니다.
 ④ 성아가 만든 프로그램이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성아가 만든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재은의 조언이 아니다.
 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라는 것은 재은의 조언이 아니다.

03 말하기 방식의 이해 ①

전문가가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고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달라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전문가는 많은 사례 중에서 ‘판옥선’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판옥선이 평저 구조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을 용이하게 했다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전문가가 사용한 ‘평저 구조’의 의미를 묻고 있다.
- ⑤ 진행자의 마지막 발화에서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04 발표 계획하기 ④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사실은 발표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왜 그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은 발표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인물화는 고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호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와 같이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앞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를 뒤에서 알려 주고 있다.
- ②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밝혀냈다고 합니다.’에서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 ⑤ 컴퓨터로 복원한 그림이 어느 것인지를 묻은 후 ‘그림 1’을 보여 주는 장면에서, ‘그림 1’이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5 발표 내용 평가하기 ①

발표자는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라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 청중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후, 청중의 대답을 듣고서 ‘그렇습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발표자는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그림 1’과 ‘그림 2’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는 발표 내용은 없다.
- ③ 발표 상황이 사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지칭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 ⑤ 발표를 마무리할 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6~10] (작문)

06 글의 특성 이해하기 ①

‘‘청소년을 위한 UCC 제작 기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입니다.’에서 필자의 요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② 필자의 정서가 서술된 글은 문학적인 글이다.
- ③ 이 글에서 '담당자'라는 특정한 독자가 언급되기는 했으나, 그 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인 글은 아니다.
- ④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태도도 더 긍정적이 된다는 효과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 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⑤ 이 글에는 필자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개인 정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변 친구들이 UCC 제작 기술을 몰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만을 언급할 뿐이다. 이와 같은 실태가 필자가 속한 집단의 개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07 자료 활용 방안 ③

(다)를 통해 UCC 제작 활동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

- ① (가)의 1에는 제작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2%이다. 그런데, (가)의 2에는 향후 UCC 제작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89%이다. 이는 UCC 제작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작 기술을 모른다는 점(68%)이다.
- ④ (가)의 1과 (나)를 활용하여 UCC 제작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많다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가)의 1과 (나)를 활용하여 기술을 익힌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⑤ (가)의 1과 2를 활용하여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향후 제작 의향이 있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UCC를 제작한다면 (다)에서 언급된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08 조건에 맞는 글쓰기 ③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독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
- ② 견해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문제점도 자료에 언급된 내용과 거리가 있다.
- ④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
- ⑤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09 작문 계획하기 ②

신문이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을 서술하겠다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 ①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 나눔 도서관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에서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시키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 글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이고, 나눔 도서관 활용을 위한 주체를 ‘우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에서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 ⑤

‘이처럼’은 앞에서 언급한 나눔 도서관의 의의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나’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강화되어진’은 ‘강화+되(다)+어지+L’으로 분석될 수 있다. 피동을 만드는 ‘-되다’와 ‘-어지’가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기여’는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이란 의미이다. 돈이나 물품 따위를 남을 위해 그냥 준다는 의미의 ‘기증’이 적절하다.
- ③ ‘그 동전’에서 ‘그’가 지시하는 내용은 뒤에서 언급되는 ‘나눔 동전’이다. 따라서 ㉠은 ‘나눔 동전’에 대해 언급한 내용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요청’은 ‘요구하여 청하다’란 의미이다. 이 어휘는 문맥상 부적절하므로 ‘필요한’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음운 현상 이해하기 ③

‘따뜻하다’가 [따뜨타대]로 발음되는 것은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소리 난 후,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 축약 ㉡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뀐 변동에 해당되나, ㉡은 된소리되기에 해당된다.
- ② ㉠은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이 없다. 음운 현상 중 이와 같은 경우는 없다. ㉡은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지만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④ ㉡은 된소리되기이고, ㉢은 자음 축약이다.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은 음운(자음) 축약이 나타나지만 ㉡은 음운 첨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12 사전 활용하기 ③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의 ㉠의 ①과 ㉡의 ‘에’는 격 조사이고, ㉢는 접속 조사이다.
- ②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에’의 ①과 ‘에서’는 격 조사이지만 ‘에’의 ①은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에서’와 바꿔 쓸 수 없다.
- ⑤ ‘에’의 ②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집’이 출발점이 되어 의미가 바뀌게 된다.

13 문장 성분 이해하기 ④

‘겨울이 오기’는 명사절이 관형절로 쓰인 예일 뿐, 부사어로 쓰인 예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갈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기다린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③ ‘자식이 행복하기’는 조사가 생략되었으나 ‘바란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⑤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서술어 ‘이르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14 품사의 이해 ⑤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에서 ㉠의 ‘저희’는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재귀칭 대명사로서,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 ‘이것’은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서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의 ‘그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서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의 ‘당신’은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로서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의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서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법의 이해와 적용 ③

③은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로 ‘연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인 ‘잡수시다’가 사용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그분’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인 ‘성함’이 사용되었다(㉢).
② 객체를 높이는 용언인 ‘여쭙다’와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인 ‘택’이 사용되었다(㉣).
④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부모님’과 객체를 높이는 용언인 ‘모시고’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를 높이는 용언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16~18] (과학)

16 핵심 정보의 파악 ⑤

㉠의 키르히호프는 분광 분석법을 통해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셋째 문단). 이후 이러한 분광 분석법을 동료 과학자들이 적용하여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히는 데 공헌했다(넷째 문단). 결국 키르히호프의 분광 분석법은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키르히호프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둘째 문단).
②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셋째 문단).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불꽃 반응은 키르히호프 이전에 이미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첫째 문단).

- ④ 프리즘을 통과시켜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은 이미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창안하였다(셋째 문단)

17 세부 정보의 확인 ③

분젠과 키르히호프의 실험 과정에서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제시되어 있다(둘째 문단). 따라서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분광 분석법을 통해서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결국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함으로써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둘째 문단).
- ② 빛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에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역으로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둘째 문단).
- ④ 분광 분석법을 통해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셋째, 넷째 문단).
- ⑤ 분젠이 개선된 버너를 고안했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고 제시되어 있다(첫째 문단). 분젠이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사례에의 적용 ④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은 나트륨이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셋째 문단).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면, <보기>에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이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트륨 스펙트럼이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지지 않았으므로 항성 α 에는 태양 대기 성분인 나트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다.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이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했으므로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이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지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이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진다고 했으므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나트륨)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1] (예술)

19 세부 정보의 확인 ②

홍예가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면, 주변 경관과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고 제시되어 있다(셋째 문단). 그러므로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이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홍예석들은 서로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홍예석들을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사례의 비교 분석 ⑤

옥천교의 용머리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셋째 문단). 그리고 승선교의 도깨비 장식은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각되었다(〈보기〉). 그러므로 두 다리에 장식을 덧붙인 것이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④

‘이러한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에서 ㉠의 ‘방지한다고’는 ‘어떠한 일이나 현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막는다고’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22~23] (인문)

22 핵심 정보의 파악 ①

셋째 문단에서 토인비는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토인비는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사례에의 적용과 해석의 적절성 판단 ③

〈보기〉를 통해 둘째 집단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24~27] (사회)

24 서술 방식의 파악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제시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과 실행 과정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피하기 >>

- ①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둘째 문단,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세부 정보의 확인 ⑤

첫째 문단의 ‘요즘 시청자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와 다섯째 문단의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의 내용을 통해 추론하면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간접 광고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둘째 문단).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제시되어 있다(첫째 문단).
- ③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셋째 문단).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첫째 문단).

26 핵심 정보의 파악 ①

㉠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셋째 문단).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이 시행되면 방송 광고업체가 이 제도를 환영할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7 사례에의 적용과 해석 ②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방식이며,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방식이다(둘째 문단). 따라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닌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

- ④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셋째 문단). 따라서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30] (기술)

28 세부 정보의 확인 ④

둘째 문단에서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으므로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마지막 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둘째 문단에서,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넷째 문단에서, '광 검출기의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 하여'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둘째 문단에서,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29 내용의 이해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영역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에서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둘째 문단에서,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첫째 문단에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흠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했으므로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30 사례에의 적용 ⑤

〈상태 1〉에서는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4)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4)이 같으므로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10)이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6)보다 크므로 CD 기록면과 너무 가까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상태 1〉의 네 영역 출력값의 합(8)이 〈상태 2〉의 네 영역 출력값의 합(16)보다 작으므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2〉보다 〈상태 1〉이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4)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4)이 같으므로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10)이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6)보다 크므로 구동될 필요가 있다.
- ③ 〈상태 1〉에서는 좌 영역(3)과 우 영역(1)의 출력값이 다르므로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는 같으므로(3)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④ 〈상태 1〉에서는 좌 영역의 출력값(3)이 우 영역(1)보다 크므로 레이저 광선의 트랙이 왼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는 좌우 영역의 출력값이 같으므로(3) 가운데 조사된다.

[31~33] (현대시) 이형기, '낙화'

31 표현상 특징 ③

꽃이 지는 순간에 느낀 화자의 고조된 심정을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1연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와 같은 표현에서 영탄적 어조가 선명히 드러나며, 전체적으로 구체적 청자를 설정해 두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 듯한 어조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조적 표현도, 삶의 모순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하롱하롱’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될 뿐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경쾌한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으며 순환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도 아니다.

32 시구의 이해 ④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낙화 이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도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때를 알고 이별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이별의 상황을 자연물인 꽃잎의 떨어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은 ‘열매’와 같이 화자가 이별을 통해 얻게 될 내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⑤ ㉤은 ‘성숙’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와 시련을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4~37] (현대 소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4 내용의 이해 ①

등장인물인 ‘영수’의 시각을 통해 그들의 가족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인물들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현학적인 표현이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대화와 외화로 이야기의 구조를 나눌 수 없으므로 액자 구조라 할 수 없다.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지 않다.

35 인물에 대한 이해 ④

㉡의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은 이후에 입주권과 교환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떼어 보관하는 것은 생활의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생활의 의지를 끈질기게 이어 나가는 행위, 혹은 마지막 희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철거’에 대한 ‘어머니’의 ‘답답함’ 혹은 ‘절망감’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② ㉡은 ‘어머니’가 처해 있는 절망적 현실과는 상반된 지명으로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③ ㉢은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철거’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아버지’가 굴뚝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느끼는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⑤

본문에서 ‘지섭’은 난장이가 평생 열심히 살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지섭’이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다.

37 한자 성어의 적용 ③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는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중구난방(衆口難防)’이 가장 적절하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일구이언(一口二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⑤ 횡설수설(橫說堅說)은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쿵저러쿵 지껄임’을 이르는 말이다.

[38~40] (고전 시가) (가) 왕방연의 시조, (나) 임제의 시조, (다) 원천석의 시조

38 공통점 찾기 ①

(가) 작품에서 ‘고운 님 여의옵고’라는 부분에서 대상의 부재를 알 수 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와 ‘울어 밤길 가는구나’에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알 수 있다.

(나) 작품에서 ‘백골만 문혔느냐’라는 부분에서 대상의 부재를 알 수 있고 ‘슬퍼 하노라’에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알 수 있다.

(다) 작품에서 ‘만월대도 추초로다’라는 부분에서 고려의 멸망을 알 수 있다. 고려를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의 멸망은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의 멸망을 대상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눈물겨워 하노라’에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가) 작품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가난한 상황이 아니다.
③ (다) 작품은 고려의 멸망에 대해 슬퍼하는 상황이다. 이를 예기치 않은 이별이라고 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망국의 한이 이별의 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이 예기치 않은 것인 지도 알 수 없다.
④ (가) 작품에서 자연의 섭리가 나오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란 자연 세계 속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작품은 임과의 이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슬픔을 냇물의 소리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⑤ (가) 작품에서 화자의 이념과 어긋나는 현실이 없다. 화자의 소망과는 달리 임과 이별한 상황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39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이해 ⑤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는 백골이 되어 문혀버린 대상의 부재를 표현한 것이다. 이를 각박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천만리'라는 표현에서 과장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고운 님 여의웁고'에서 '님'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②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저 물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자의 슬픔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화자는 지금 임과 이별한 상황인데 그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홍안'과 '백골'은 시어의 대비이다.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가졌던 대상이 백골이 되어 버렸음에 대해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른 작품과의 비교 ②

(다) 작품에서 이질적 공간이 대비되지 않았다. 만월대는 가을풀에 덮여있고, 해가 지는 가운데 화자가 눈물겨워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몰락한 만월대의 모습과 번성한 조선 궁궐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질적 공간의 대비로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몰락한 고려의 모습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질적 공간의 대비로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전부 4음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다)는 고려가 멸망한 상황에서 침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 <보기>는 봄을 마음껏 즐기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④ (다)에서 화자는 망국의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 때 배경을 석양으로 설정했다. 이는 의도된 설정이므로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는 상황이므로 이때 설정된 '석양'이라는 배경은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다)는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독백체의 형식인데 <보기>는 '홍진에 묻힌 분네'라는 청자를 설정했으므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43] (고전 소설) 허균, '홍길동전'

41 작품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 ④

율도국 태수는 행복하지 않고 홍길동과 싸우다가 죽는다.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행복한 사람은 율도국 왕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임금이 길동을 보고 처음에 선동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 ② 인형이 길동을 보고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길동이 선봉장이 되어 정예병 오만을 이끌고 철봉산에 진격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길동이 마숙과 최철에게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은 부분에서 알 수 있다.

42 사건의 의미 파악 ②

부친의 생전에 길동은 호부호형을 허락받음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그리고 부친의 사후에 산소를 주도적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자신이 부친의 자식이라는 것을 공고히 했다. 만약 길동이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부족했다면 자신의 주도로 부친의 산소를 모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진 것은 알 수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은 길동의 위세와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 ④ 모부인이 참석했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모부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후자가 되려면 모부인이 가부장의 권위를 계승해서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형태 등의 모습이 이 글 속에 있어야 한다.
- ⑤ 모친이 길동을 염려하는 부분이 없다.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도 없다.

43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③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는 내용이 없다. 임금이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회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 글에서 길동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벼슬길이 막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길동은 신분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 현실에 대해 저항했었다. 그런데 자신이 벼슬을 받고 욕망이 성취되자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저항에 대해 죄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사회의 부조리와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임금은 길동에게 벼슬을 내려서 불만을 달랬을 뿐이다. 근본 원인인 신분 차별의 현실을 개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⑤ 길동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율도국을 침략하면서 자신을 '의병장'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자신이 명분과 괴리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순에 빠진 행위를 하는 것이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44 종합적 이해 ①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 '마치 흥망한 형리(刑吏)처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글쓴이의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④

글쓴이는 ㉠을 '지상 최대의 권태자'로 규정하며 ㉡을 통해 글쓴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라 규정하며 그와 대비되는 자신을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 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과 ㉢은 둘 다 글쓴이가 자신의 권태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⑤ ㉠은 글쓴이보다도 더 권태로운 존재, ㉡은 글쓴이가 지니지 못한 열정을 지닌 존재이다.